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다시 시작한 따뜻한 발걸음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

‘찾아가는 서남동행진료’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서남권 5개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의사 진료, 약 처방 및 복지지도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서남병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 서남권에 소재한 다수의 복지관에 방문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홉 번의 서남동행진료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날' 건강부스 운영

지난해 9월 30일, 양천문화회관 앞의 쌀쌀한 날씨에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주관한 ‘팔팔한 청춘!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참여자들이었다.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피로도가 높았을 어르신들을 위해 축하무대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었고, 서남병원도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스를 열어 어르신들의 즐거움에 기여했다. 손 씻기 교육과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과 병원 홍보를 실시했는데 다른 부스들이 인정할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대시민 건강강좌 재개

“집에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서남병원에서 강의해줘서 너무 좋아요.”

지난 5월, 건강강좌에 참여했던 시민이 남기고 간 소감이다. 서남병원 건강강좌는 2011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강좌를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대면 건강강좌가 올해 5월에 다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건강 관련 궁금증이 생겨도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던 참여자들은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돌아갔다.

자조모임 '우리자주방(房)'

공공의료사업실은 지난 10월 19일과 11월 24일에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우리 자주방(房)’을 개최했다. 만성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모인 대상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어색해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황덕기 어르신은 “평소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배운 바를 잘 활용해 만성질환을 더욱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남병원에 전해진 온정의 손길

백암고등학교, 입원환자 후원물품 전달



지난 12월 23일(금), 공공의료사업실과 간호부는 백암고등학교에서 준비한 물품을 후원받아 입원환자들에게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멜로디카드와 수면양말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환자 A씨는 “학생들이 손수 써준 편지를 읽고 힘이 나 더욱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원하면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실도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감사장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학교를 찾았다. 백암고등학교 관계자는 “서남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남권 지역주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동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 실천



지난 1월 6일(금), 공공의료사업실은 서남병원 3층 도서관에서 2023년 동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본원 소개, 부서별 봉사 내용 안내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전교육을 마친 동계 자원봉사자들은 원내 곳곳에 배치되어 1월 9일부터 약 2주간 내원객 안내, 원내 부서 업무지원 등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생애 첫 자원봉사를 본원에서 시작하는 김유람 양은 “평소 병원은 치료만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방문 진료처럼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서남병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